

## 경북도회 원정대 회장

#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MOU 체결 등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경북도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기계설비건  
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정대 경북도회 회장[대림인슈테크 대표]으로부터 경북도회의 사  
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본회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원정대 회장은 경  
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금액제한 없는 분리발주 실시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 MOU  
체결 등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제9대 회장으로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도회는 그동안 추대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으나 지난 해 처음으로 경선을 치르면서 제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업계는 6천여 회원사 중에서 10억원 미만 기성실적 업체가 43%이고 100억원 이상 업체는 6% 정도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회원사가 많습니다. 저도 매출이 적어서 열악한 업체 중 하나지만 힘없고 열악한 업체들을 대변하기 위해 회장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 뜻에 공감한 회원사들이 많았기에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320여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회원사를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주요 발주처인 포스코의 생산량 감소는 경북지역 건설업계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저는 회장에 당선된 후 회원사와의 소통은 물론 기계설비업계의 근간이 되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협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협회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회원사들도 협회의 사업추진 현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회원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3개 시·군·구의 발주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우리업계와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경상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100억원 미만만 분리발주 했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금액 제한 없이 분리발주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본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난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가장 큰 업적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회원사의 기업운영자금을 위한 신용대출 확대 등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북지역 회원사의 단합을 위해 권역별 모임에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각 지역 회원사의 의견 수렴은 물론 협회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회원사와 함께하는 경북도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첫째, 본회와 함께 지방계약법 개정 이끌어

그동안 우리협회의 노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은 바뀌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본회와 함께 안전행정부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등을 방문하여 지방계약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공사도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가 회장에 취임한 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5년간 바꾸지 못했던 지방계약법 개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우리도회 회원사들의 자부심이 커서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 둘째,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 적정 공사비 확보 주력

경북도회 회원사는 타 시·도회에 비해 매출

규모가 적고 열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투자 위축으로 포스코 등 주요 발주처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발주관서를 순회 방문하며 분리발주 확대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분리발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거론하면서 분리발주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100억원 미만만 분리발주를 해왔으나 우리도회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로 앞으로는 금액제한 없이 분리발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경북관광공사 등 모든 경북지역 지자체 발주관서를 다니며 분리발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리발주 및 기계설비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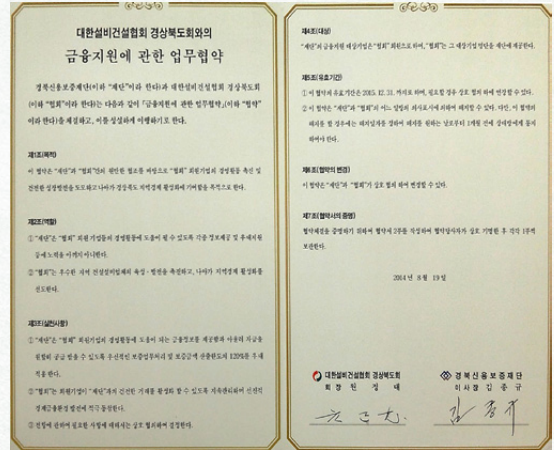
제가 23개 시·군 교육청과 경북관광공사 등 경북지역 지자체의 발주기관을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지만 아직도 기계설비 자체를 모르거나 분리발주제도를 모르는 담당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회는 기계설비 및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시·군의 발주관서 계약직 담당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



한 모든 회원사에게도 배포하여 회원사의 대외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MOU 체결**



저는 우리 회원사가 계약 및 하자보증 등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운영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계설비업체는 리스크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신용 대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사의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우리도회는 지난해 8월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보증재단으로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보증업무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부도 및 리스크 발생이 잦은 건설업체에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회장이 되자마자 평소 친분이 있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적극 건의를 한 결과 경북지역 건설업체 최초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경북도회 회원사의 우선적인 신

용보증업무 처리 및 보증금액 산출한도 우대(120%) 적용이며, 보증책정금액은 전년도 매출의 25%(중소기업 대상, 한도 8억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은행 대출이자 3~4%)을 받게 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입니다. 재무제표 등의 서류만 갖추면 되므로 제출서류 간소화는 물론 여타 은행권보다 20% 상향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많은 회원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OU 체결은 경북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도회 회장님들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회는 이처럼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 다섯째, 회원사 화합 및 유대강화 사업추진

경북도회는 지역이 넓어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사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후 회원사 단합 및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기금을 지원하여 회원사 간 정보 공유와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은 경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협회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회는 해마다 회원사의 소통과 친목을 위해 회원사 단합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몽골에 다녀왔는데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나 회원사간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50여명 이상 참석하는 이 행사에 좀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우리도회 및 회원사의 자비부

담으로 행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상북도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박람회 및 엑스포 등에 참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여섯째, 자긍심 고취 및 위상 강화 활동

우리도회는 기계설비업계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설협회, 전문협회, 기계설비협회, 건축사협회, 주택협회 등 경북지역 5개 건설관련 단체가 한데 모여 '경상북도 건설인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지역 건설인들이 주관한 건설인 어울림 한마당 및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우리도회는 지역건설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기계설비인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2회를 맞은 이 행사에서 우리도회는 회원사 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인상 수상자로 추천함으로써 지역 건설경제 발전을 위한 회원사의 노력을 인정받은은 물론 우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회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회원사에 대한 포상을 달리했습니다. 우선 경북도회를 대표할 뿐 회원사의 한 사람인 제가 회원사에게 상을 주는 것보다 도지사 혹은 각 시·군의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상을 받도록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되어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 대표들이 받았던 도회장 포상은 25명의 우수업체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회원사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총회 때 포상이 풍성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도 하지만 매우 즐거운 분위기에서 총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 여섯째, 회원서비스 강화

그동안 경북도회 부회장, 운영위원을 역임하면서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회장이 된 후 모든 회원사가 협회의 사업추진 현황이나 동향을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건설사회보험 관리, 특이형태 근로자 고용관리, 노동부 지원금 제

도 등의 노동법률 홍보 및 노무실무 교육을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구미, 포항 등 2차에 걸쳐 건설공사 실적신고 작성요령 및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 설명 등을 통해 회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제도 및 신고사항 등을 공문 및 업무연락 등으로 팩스를 전송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각종 경조사도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때문에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사들에게는 기념품을 발송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Won Jung Dae

원정대 회장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사진작가이다. 특히 세계 오지를 탐험하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몽골의 바단지린사막(巴丹吉林沙漠 파단길림사막, 2014)

회원사에게 한말씀

제9대 회장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경북도회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경북도회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회원사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에 늘 귀기울이는 협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특히 회원사 유대강화와 화합 증진을 위해 '회원사에 의한,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우리도회의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북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도회 사무처 직원들(왼쪽부터 김연경 과장, 장현욱 차장, 정국환 사무처장, 길영은 직원)

원정대 회장은

- 1960년생
- 대륜고등학교 졸업
- 영남이공대 졸업
- 계명대 경영대학원 수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 부회장 역임
- (사)자연사랑연합회 운영위원장 역임
-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역임(이회창 경북 후원회장)
- 이명박후보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구미라이온스 클럽 회장 역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장 역임
- 現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부회장
- 現 경북신보 경상북도 기업발전협의회 회장
- 現 재 구미 대륜중 · 고 동창회 회장
- 現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 이사
- 現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 대통령 감사장
- 경상북도지사 표창
- 경찰청장 표창